

신앙적 삶의 style

오늘은 신앙적 삶의 style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 :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마태복음 6 :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 :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 :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여러분께서는 이런 자연에 나오시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만나는 문제중의 하나가 염려와 걱정일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40년을 암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70세에 폐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생기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40년을 산 것입니다. 이차 대전 중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부모와 자매를 잃고, 수용소에서 생활을 한 코리텐 봄 여사는 □염려와
걱정이 미래의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한다.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힘만 없앨 뿐,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에 나오면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연에 비유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오늘 읽은,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들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마태복음 6:27)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가지 라이프 스타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style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적 삶의 style(Natural life style)과 신앙적 삶의 style(Religious life style)입니다.

우리는 자연적 삶의 style을 벗어나, 신앙적 삶의 style로 들어 가지 않으면 염려를 벗어 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안에는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계 안에는 오직, 생존 경쟁에 의해 살아 남은 것만 생존을 계속합니다. 따라서 자연적 삶의 style에는 언제나 생존하기 위한 긴장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계의 원리인 생존 경쟁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연적 삶의 style을 살려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염려와 걱정을 벗어 버릴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해소해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울타리를 쳐보고자 노력해도, 염려와 걱정이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연적 라이프 스타일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자연적 라이프 스타일에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쉴 곳이 있습니다.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 :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84 : 4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 :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 :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 :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어버리기 위해선 절대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적 삶의 style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능력과 삶의 자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 신앙적 삶의 style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24 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의지하기 위해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학식을 의지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존재 유지를 위해 의지할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일단 그 것이 찾아지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며,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지할 대상이 찾아지고, 사랑하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그리로 이동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놓여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과법칙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한 곳만 되지 두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놓였느냐에 따라, 염려나 평안이나가 결정됩니다. 행복이나 불행이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재물도 학식도, 명예도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과 나를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 : 1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 :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 :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둘째로,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 신앙적 삶의 style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께로 나아온 사람은 반드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한곳에 있지 두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온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께로 이전해야 합니다. 시편 37:5-6은,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 : 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완전히 이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땐 모든 짐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모두 맡긴다고 기도해 놓고선, 집에 돌아갈 때는 모두 다시 싸 가지고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짊어지고 고생하다가, 주일 날 교회에 오면 모두 다시 맡깁니다, 집에 갈 때는 모두 다시 싸가지고 돌아 갑니다. 매일 풀러놓았다가 다시 싸가고, 풀러 놓았다가 다시 싸가고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 :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고 합니다.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 버리고, 다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맡긴 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빌립보서 4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이 지배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으로 꽉 찰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셨다는 신호입니다.

셋째로,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 신앙적 삶의 style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엔 염려와 걱정 대신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천지가 찰흙처럼 어둡고,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평안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우리의 행복한 신앙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마음의 평화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배와 평안이 항상 있기를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선 교회 안에서 problem maker의 역할을 맡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남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확장 사업에 여러 분이 몸으로 재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3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앞에서 행한다**고 하며,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물질을 더하여 주십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불신자조차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다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것은 something wrong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선,
제일 먼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버려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골고루 이루어져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